

목포평화광장, 5월 중 대변신 한다

중앙광장 바다분수 형상화 화강석 교체·시공 중 녹지공간 재조정...공간 활용도 ↑ 관광 요소 강화

대대적으로 변신한 목포 평화광장을 조만간 만날 전망이다. 목포시는 지난해 9월 평화광장 리모델링 사업을 착공했고, 현재 공정률은 60%로서 오는 5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평화광장 리모델링 사업은 보행자와 차량의 혼용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평화광장의 해변차로 일부를 없애고, 인도와 녹지공간을 재조정하는 등 보행자 안전 및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개선 사업이다. 특히, 시는 중앙광장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중앙광장 바다를 '춤추는 바다분수'를 모티브로

삼고 화강석으로 오선지와 높은음자리표를 형상화할 계획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평화광장은 시가 새롭게 준비 중인 해양음악분수 해상판타지쇼, 해변맛길 30리 등과 연계돼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 목포의 또 다른 명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평화광장 리모델링사업은 공사 착공 이후 평화광장 옆 달맞이공원 내 주차장 조성에 대한 주민과의 이견으로 공사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인근 아파트 주민과 상가 의견을 적극 수용해 달맞이공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갯바위 인근 도로 신설 및 주차장 조성계획을 최소화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또, 일방 통행 및 대각선 주차로 계획했던 평화광장 내 상가 앞 도로를 확장해 차량 주차시에도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3월 말까지 사업



영광군, 양파 노균병 확산 속도 빨라 온난한 날씨로 노균병 조기 확산...체계적인 방제 필요

영광군은 최근 따뜻해진 기후의 영향으로 양파에서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노균병이 확산되고 있어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양파 노균병은 토양전염과 공기전염으로 발생되는데 발병온도는 4~25℃로 기온이 상승하고 잦은 강수로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발병률이 높아진다. 영광군의 3월 상순 평균기온이 6.7도로 평년보다 1.5도 높고 강수량 또한 54mm로 평년(28.1mm)보다 높아 노균병 발병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병 확산이 평년보다 빠르다. 양파 노균병 발생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는 육묘 중 감염돼 겨울철 잠복해 있다가 2~3월 온습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하고, 2차는 3~4월 1차 발생한 병원균이 분생포자를 형성하고 바람을 통해 전파되면서 나타난다. 따라서 1차 감염으로 피해 받은 포기는 초기에 뽑아서 태우고 병이 관측된 이후에는 농약허용기준 강화제(PLS)를 준수하는 체계적인 방제를 시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노균병 발병환경이 조성되는 경우 이전에 약제를 살포하고 병이 관찰되면 침투이행성 약제를 1~2차례 살포하여 2차 감염원을 제거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3~4회 정도 보호형 약제를 살포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기자

영광=서희권기자



신안(흑산권역, 서남권역) 주요 도시 생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신안군은 지난 17일 신안군청에서 박우량 군수를 비롯 한국식생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흑산권역, 서남권역) 주요 도시 생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신안(흑산권역, 서남권역) 주요 도시 생태조사 용역은 신안군에 서식하는 우수한 생태자원을 발굴하여 보전·관리 및 도서별 미래 전략 계획 추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신안 주요 도시 생태조사용역은 작년 3월부터 흑산권역 및 서남권역 생태조사를 시작으로 금년 3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신안군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DB 구축, 도서생물 자원화, 생태계 서비스 활용을 실현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식생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흑산권역(가거도, 만재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다물도, 대둔도, 장도, 영산도) △서남권역(비금도, 수지도, 도초도, 하의도, 신의도, 능산도, 장병도, 옥도, 대야도)으로 권역별로 생태(식물상, 식생) 조사, 법정보호종 분포 현황 및 생태자원의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신안군은 연구용역을 통해 주요 도시 생태 정밀조사로 우수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계 관리의 기초 자료 및 신안군 환경보전계획 수립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용역은 신안군 식생 자원을 확보하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안=이택주기자

합평군, '공유누리' 서비스 확대 운영

합평군은 공공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진과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공유누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유누리'는 국민 누구나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및 물품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예약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유서비스 통합 플랫폼이다. 군은 지난해 33건이었던 개방공공자원수를 올해 92건으로 대

폭 확대하고 앞으로도 군민 이용이 가능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등록해 실시간 온라인 또는 전화 간편 예약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시설 예약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공유누리(www.eshare.go.kr)에 회원가입 후, 지역·종류별 이용 희망시설의 운영시간, 예약방법 등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합평=김광훈기자

영암군, 체육시설업 안전점검 실시

코로나19 대응 방역수칙준수 여부 점검도 병행

영암군은 지역내 신고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상반기 체육시설업 안전점검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3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체육시설업 안전점검 대상은 67개소로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볼링장업, 스크린골프장 등이 해당된다. 점검내용은 건물 내·외부, 승강기, 소화기 등 작동여부, 체육시설법 관련 준수 여부 등이며 코로나19 대응 방역

수칙 준수 이행 여부 현장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적발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며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례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와 병행 점검을 통해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체육활동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대표자께서도 함께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군 "갯벌낙지 맨손어업이 뭐죠?"

무안군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제6호로 지정된 무안갯벌낙지 맨손어업을 알리기 위해 웹툰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다. 웹툰은 무안이 고향인 주인공(연호)이 귀향하여 30년 낙지잡이 장인에게 가래낙지, 문음낙지, 팔낙지, 햇벌낙지, 끈낙지 등 다양한 기술을 전수 받으면서 성장하는 내용으로 총 10화, 회당 23컷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자들은 만화와 현장사진을 통해 낙지잡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갯벌을 토대로 살아가는 어촌주민들의 삶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 군은 만화를 네이버 웹툰에 '무안군 갯벌낙지'로 연재중이며, 이달 중 SNS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안=이기성기자



김산 군수는 "무안갯벌에서 낙지잡이를 하던 우리 선조들의 현명한 지혜를 전승하고 보전하기 위해 웹툰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